과학문화 소외지역 찾아간다

도교육청, 내달까지 40개 학교 대상 '찾아가는 전북과학축전'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전북과학축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과학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교로 찾아가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주, 부안, 순창, 장수, 진안, 남원, 고창, 정읍 등 8개 시군의 40개교를 방문, 3,7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9월중 고창 가평초, 장수장계중, 순창고 등 16개교에서 진행했으며, 10월 4일 부안 영전초를 시작으로 31일 고창영선중까지 24개교에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과학 공연, 과학(STEAM)체험, 과학과 만난 진로체험 등이 있다.

과학 공연은 공연 속에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를 배우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STEAM)체험은 화석만들기, 유전과 DNA, 과일 전지, 쌍안경 만들기, 태양광 헬리콥터, 위조지폐 감별기 등으로 운영된다.

또 과학과 만난 진로체험에서는 과학수사요원, 신약개발연구원, 물리학연구원, 곤충연구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찾아가는 과학축전은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20~21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52년차전국영농학생축제(2023FFK제주대회)'에서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은 금 5·은 8·동 22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 전국 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FFK제주대회서 금 5 · 은 8 · 동 22개 등 총 35개 메달 수확

도내 농업계고 학생들이 제52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참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52년차전국영농학생축제(2023FFK제주대회)'에서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은 금 5·은 8·동 22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환경을 지키GO! 농업의 가치를 더하GO!'라는 주제로 전국 14개 시도 8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에서는 9개 농업계고에서 103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금메달 5개 중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종자산업과 백인서·장현석 학생이 전공경진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한국치즈과학고 백현우·백인서 학생이 과제아수(공동) 분야에서 농림부 장관상을, 영선고 임영진 학생은 실무능력경진(화훼장식)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상과 농림부장관상은 각 분야 전국 1위 학생에 수여되는 것으로, 전북 농업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린 기회가 됐다.

더불어, 총 35개의 메달을 수상함으로써 그동안 치러진 전국영농학생축제 중 가장 많은 메달과 성적을 거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우리 농업계고 학생들이 지도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결과"라면서 "전북 지역 전략산업인 스마트농생명·바이오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계고 교육과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

감사인의 자세와 윤리 · 회계분야 감사 실무 등 주요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하반기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맞춤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교무·학사분야 감사지원 장학사, 감사지원단 등 1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감사인의 자세와 윤리를 비롯해 △회계분야 감사 실무 △교무·학사분야 감사 실무 △감사보고서 작성 요령 △민원처리 및 사안감사 실무 등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 4IR 라운지 개관

지 · 산 · 학 원스톱 교육혁신 플랫폼 활용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25일 LINC 3.0 4IR 라운지를 개관했다.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최승훈)은 25일 LINC 3.0 4IR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4IR 라운지는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체험을 통한 신산업 융복합 교과목 통합 운영 및 4C(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팀프로젝트, 창의 활동 공간,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체험(드론 VR/AR), 공간, 학생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상담 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꾸며졌다.

이에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단은 기존에 구축 된 Creative Factory, Co-Walking Space, Hy-Flex 강의실(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공간)과 연계해 학생들의 창의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신기술 체험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산·학 원스톱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병훈 총장은 "최첨단 라운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주비전대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기량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승훈 단장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풍성한 보름달에 담긴 행복 · 감사 전합니다"

서거석 교육감, 교육가족에 추석 인사

서거석 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한가위 인사를 전했다.

25일 서 교육감은 "추석을 맞아 풍성한 보름달에 담긴 행복과 감사를 모든 분께 전하고 싶다"면서 "가족의 사랑과 웃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명절의 의미를 배우고, 넉넉한 마음으로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과 책임을 배우며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학생,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학생들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 그리고 응원과 격려로 지지해 주는 학부모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새로운 변화가 많은 한 해, 진정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 포용하고 성장하는 전북교육을 마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찾은 전북대학교 조화림 국제처장(사진 오른쪽)이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에 글로컬대학30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글로컬사업 협력 약속

전북대, 주한 인도 · UAE · 인도네시아 대사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자문위원회 참여 기관의 확대를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을 찾아 글로컬사업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30 사업 본 지정 심사를 앞두고 지난 7~8월 8곳의 주한 외국대사관에 이어 9월에도 인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이 사업의 목적 등을 소개하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주한 인도 대사관 니시 칸트 싱 부대사는 전북대에서 수학하는 인도 유학생들의 수와 인도 유학생회를 위한 전북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된 후 인도대사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북대가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양국의 교육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의 본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등에서 인도네시아 대학과 교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에 전북대 국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해 여러 대사관을 방문해 우리대학의 목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특히 글로벌자문위원회를 통해 해외 대학과 교류하고 협력해 전북대가 세계적인 글로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돈 · 시간 ·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전북대, 베스트셀러 '역행자' 자청 작가 초청 북토크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도서관장 이준영)이 베스트셀러인 '역행자'의 자청 작가를 초청해 북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북토크 첫 강연자로 자청 작가가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공략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북토크는 10월 12일 오후 2시 전북대 중앙도서관 1층 로비라운지에서 열린다.

이에 중앙도서관은 북토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사전모집 50명, 현장모집 50명 등 모두 100명이다.

오는 27일까지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bn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자에게는 역행자 확장판 도서 및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준영 도서관장은 "이번 북토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063-270-4404~5)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진안 마이돈 테마공원서 내달 7일 '도서관 문화축전'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오는 10월 7일 진안 마이돈 테마공원에서 제17회 도서관 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문화축전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분관 포함한 10개 기관)과 도서관(8개 기관)이 주최, 올해는 도서관 축전 최초로 진안군청과 협력해 진행된다.

'미래교육을 향한, 도서관의 책바람'을 주제로 모이다, 즐기다, 거닐다, 물들다 등 4개 테마로 나눠 독서문화행사, 문화탐방, 체험 및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이날 도서관 문화축전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책 속 주인공을 찾습니다(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주인 찾기 등) △가을의 구름빵(솜사탕 체험) △미드나잇 커피브러리(바리스타 체험) △스탬프 이벤트 등이 있다.

이현규 관장은 "책바람이 부는 가을, 진안 마이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집약체인 도서관 문화축전을 즐기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날아라!' … 이리모현초 익산 희망연대와 벽화그리기

이리모현초등학교(교장 임미성)은 지난 23일 학교 운동장 남측의 낡은 담장에 벽화를 그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희망연대 회원 40여 명과 학부모, 학생 115명 등 총 150여 명이 함께 해 환경생태교육의 의미를 담은 '날아라, 모현초!' 벽화를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벽화 그리기는 학교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참가자 모집 40여분 만에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등 관심이 컸다. 어린이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붓솜씨로 한 줄 한 줄 정성껏 벽화를 칠해나갔고, 학부모들도 아이들 곁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응원했다.

임미성 교장은 "우리 학교가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함께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며,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후 위기라는 주제로 협력해 벽화로 표현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도와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리모현초등학교는 개교 28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교실 전체 냉·난방기 교체, 전교생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창호 교체 공사 및 운동장 트랙 변경 공사 등을 펼치고 있다. 향후 실외체육관, 방송실과 도서관 현대화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후기공모전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지난 22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안군 청년을 대상으로 후기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기획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후기공모전은 참여 청년의 후기를 통해 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선미 씨는 "부안 청자의 매력에 빠져 김포시에서 귀촌해 모든 것이 막막했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